

2026학년도 '유레카 초청강의' 대장정

우석대 대표 교양 프로그램... 첫 연사 이충훈 전주MBC 아나운서 '실패에서 배우는 말하기 기법' 강연

우석대학교의 대표 교양 프로그램인 '유레카초청강의'가 2026학년도 일정에 올랐다.

우석대학교는 12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올해 첫 유레카초청강의를 열고 본격적인 강연 프로그램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레카초청강의는 1999년부터 이어져 온 교양 필수 과목인 '유레카초청강의'를 통해 국내외 저명 인사와 대학 동문 등을 초청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

학생들에게 영감과 통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연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첫 연사로 나선 이충훈 전주MBC 아나운서가 '실패에서 배우는 말하기 기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아나운서는 방송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인 말하기의 핵심 요소로 기본기와 소

재, 구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발표와 말하기는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하기의 끝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며 "상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6학년도 유레카초청강의에서는 송민규 미디어엔 대표의 'AI 인재상과 AI 리더십', 이규택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의 'AI 시대의 기업가 정신', 정재섭 BK기업은행 전 부행장의 '인생은 두려움 고민 그리고 용기', 최현주 전 국가대표 양궁선수의 '우석에서 나를 찾자', 박진호 고려대학교 교수의 '21세기 신기술 XR-VR과 AI 영화의 세계, 최원규 네바다주립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개발과 글로벌 인재상 등 다양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제8회 교육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제8회 교육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인 또는 팀(최대 3명)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학생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학교 홍보영상' 분야와 중·고등학생 및 성인(대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AI 활용 소수학교 홍보영상' 분야가 신설됐다. 참가자는 이미지와 영상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매력을 소개하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또한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는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 생활과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나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dataedmgr.kr)을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권은 수량이 한정돼 있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와 제출은 AI 이용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JBNU 인터내셔널센터 4층 옥상에 706㎡ 규모의 '스카이라운지'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 대학 주요 보직자, 학생 대표, 국가별 유학생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 글로벌 소통 랜드마크 '문 열다'

JBNU 인터내셔널센터 4층에 '스카이라운지' 개소 학생 중심·글로벌 허브대학 실현 노력 핵심 성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휴게 공간을 캠퍼스 중심에 새롭게 선보였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날(지난 11일) 전북대는 대학 국제회의 본사인 JBNU 인터내셔널센터 4층 옥상에 706㎡ 규모의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 학생대표, 국가별 유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새롭고 시원한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스카이라운지 개소는 그간 학생 중심, 지역 상생 글로벌 허브대학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북대의 핵심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전북대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휴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도서관 1층을 '중도라운지'라는 혁신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지난해에는 JBNU 인터내셔널센터 내에 1층을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개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이어 문을 연 이번 스카이라운지 역시 학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적용되어, 전북대만의 차별화된 학생 중심 복지 인프라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카이라운지는 대학의 중심부에 위치해 대학본부와 정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해 캠퍼스 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이 공간은 전북대가 글로벌 국제화 사업의 핵심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에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내국인 학생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교류의 장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고 유학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소통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어 대학과 지역 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개소식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운지에서 학업에 매진하며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크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성공적인 유학 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16~20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분청 창조미래 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장학사와 업무별 담당 교사, 특수학교 담당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월 동안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2026년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연계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센터 역할 강화와 담당자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서는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업무 안내를 비롯해 집합 교사 연수, 거점센터 운영, 장애학생 인권 지원, 장애 영유아 지원 통합교육 지원 진로직업교육, 치료지원 업무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연수 이후에는 각 센터별 전달 연수와 업무 공유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센터 간 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스쿨팜서 농업·농촌 소중함 배워요" | 전북교육청, 학교내 조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 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스쿨팜' 조성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2일 '2026년 스쿨팜 참여 학교'로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등 총 25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농협, 전주·군산·익산 3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올해는 전주 5개교, 군산 8개교, 익산 12개교에서 운영된다.

'스쿨팜'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어로, 학생들이 작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하며 조리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배우고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선정된 학교에는 텃밭 관리와 농업 체험 교육을 지원할 인력이 제공되며, 종자와 모종 등 농자재와 체험학습 기자재도 함께 지원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 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스쿨팜' 조성을 지원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스쿨팜 사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수확의 기쁨과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협과 지

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오상근 기자

고교 '동물복지' 교과서 탄생

농식품부 개발... 2026년부터 정규 수업에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승인돼 2026년부터 정규 수업에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과서가 국내 최초의 고등학교 동물복지 인정 교과서로 승인됐으며, 20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수업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의식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단계별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는 기존 초·중·고교 중심의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물 관련 산업의 전망과 다양한 직업군을 심도 있게 다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과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업 설계와 학습 자료 제작, 효과적인 교수법 등을 공유하며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공감 능력과 약자에 대한 배려, 책임 의식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성취 기준과 평가 도구도 개발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교육감 권한대행 올림픽 방문 학생 체육 관련 예산 활용 논란

전교조 전복서 문제 제기 "교육청 역할 범위 벗어나 예산 집행 신중함 부족"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전북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학생 체육 관련 예산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올림픽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학생선수 수가 출전하는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과 달리 교육청의 직접적인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교육감들이 선수 격려를 이유로 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사례도 드물며 이번 방문이 교육청의 통상적인 역할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행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히 올해 전북교육청이 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을 50% 삭감한 상황에서 해외 출장에 예

산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운영비 부족으로 수업에 필요한 기본 준비물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신중함이 부족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이 단체는 전북교육청에 이번 출장의 결정 과정과 목적,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생 체육 관련 예산이 해외 출장에 사용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도민과 교육공체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러 향후 교육청 간부의 국외 출장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출장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12일 발표됐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제12기 학생홍보대사와 제3기 국립대학육성사업 학생기자단의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립군산대, 학생홍보대사·학생기자단 수료식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제12기 학생홍보대사와 제3기 국립대학육성사업 학생기자단의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립군산대 학생홍보대사와 국립대학육성사업 학생기자단은 지난 1년간 동안 대학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주요 사업 캠퍼스 소식 등을 카드뉴스, 영상, 블로그 콘텐츠 등으로 제작해 대학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학생 프로그램, 주요 행사 등을 학생의 시각에서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하며 대학의 다양한 이야기를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학의 교육 환경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콘텐츠는 대학의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되며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대외 소통 강화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등 대학 홍보 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홍보대사와 학생기자단을 '국립군산대학교 학생홍보단'으로 통합·재편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학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학생홍보단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군산=김민호 기자